

人文大學生의 學業適應度 調査

이 완 정*

〈 목 차 〉

- | | |
|------------|------------|
| 1. 연구의 목적 | 5. 자료의 분석 |
| 2. 연구의 제한점 | 6. 요약 및 결론 |
| 3.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4. 연구의 방법 | Abstract |

1. 연구의 목적

대학의 풍토는 초·중등학교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수강신청, 강의 출석, 과제 작성, 각종 시험 등의 모든 것이 학생 자신의 책임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의 '시키는 대로' 그리고 '따라하기'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대학의 '자기가 알아서 하기' 풍토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대학 신입생들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태도를 버리고, 자율과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일상을 반복하다가 결국 학업 부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김원중 1998:6-7).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적응해야 할 과업은 각 교과와의 학업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문제이다. 선수학습의 결핍, 학습동기의 결여, 가정환경의 문제, 또래집단의 영향 등도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무시할 수 없는 변인들이다. 대학과 같이 다수인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학생이 다 성공적으로 학업에 적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업수행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어 부적응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는 분명히 밝은 사회라고는 말할 수 없다. 대학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업적성이나 동기는 자연과학계열의 학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문대학생들의 적성은 대체적으로 수학 및 과학 영역보다는 언어 및 문학 쪽에 기울어져 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은 어문학, 사회학 역사 등의 사회과학 및 음악 예술 등 학문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적성이나 학습동기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절히 적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적응은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을 의미한다(강선보 외 1988: 5).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행위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적응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 적응도(scholastic adjustment)란 학습자의 목표행위가 학교사회와 조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研究의 目的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생들이 각 교과영역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업 부적응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표집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밝혀진 현상은 그만큼 제한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Likert형 척도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학습능력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것이므로 직접 관찰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정상분포 곡선에 도달하지 않은 학과의 경우 통계치들이 그 학과의 대표값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은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 학점취득을 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동일학과 동일 학년일지라도 표본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1학년은 여러 전공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의 자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이론적 배경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세계를 알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항상 그의 환경 내의 사물과 사건들에 대해 알고자 애쓰며, 이러한 앎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거나 자신의 생활에서 안정감을 잃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욕구는 곧 학습동기의 원천이 된다. 학업성취도(scholastic achievement)는 학교 교과들에서 획득되거나 개발된 지식 및 기능들로서 일반적으로 교사에 의해 처리된 시험성적 혹은 등위 등을 일컫는 말이다(Good 1973: 7). 학업성취도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환경적 요인(가정환경, 학급 및 학교환경, 사회 및 문화적 배경 등) · 학습자 요인(지능, 성격, 동기 등) · 학습자체에 관련된 요인(선행학습, 학습전략) · 교수에 관련된 요인(교수매체와 방법, 평가체제와 방법, 교재의 체제와 방법, 교사특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학업성취도는 주로 학습에 의하여 획득된 결과이다. 학습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계획적, 의도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학교 풍토에 의해서 무의도적으로 습득되는 결과 등도 포함된다. 학습은 직접, 간접의 경험이나 훈련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간주되며, 질병이나 피로 또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신체 상태의 변화는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수원의 1996: 125).

근래에 학업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뇌의 기능특성, 즉 뇌의 기능분화의 차이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도 여러 편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대개 좌뇌는 언어, 수학, 과학적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우뇌는 예술적 기능과 같은 심미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일반 의학적인 가설들을 입증하려는 데 주력한다.

김경준(1983)은 좌뇌중심의 학습지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교육에서 우뇌 우세아 집단은 어려움을 겪게되며, 따라서 우뇌 우세 집단의 학생 중에서 학습부진아가 많이 출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뇌의 인지특성과 학업성적간에는 유의 있는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좌뇌 우세아 집단이 우뇌 우세아 집단에 비해 학업성적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박숙희(1997:125)의 연구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뇌기능 분화의 차이와 좌 · 우뇌의 활동수준이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는 우뇌보다는 좌뇌가 상관관계가 더 높았으나 뇌기능 특성 집단별로 나누어졌을 때는 좌뇌 우세아 집단과 우뇌우세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는 양뇌 우세아 집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양뇌 우세아 집단은 창의성도 학업성취도도 가장 높았으며 양뇌를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정(1992:82-95)의 연구는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자기보고 형식의 척도에 의해 측정

된 학습습관,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이 학업 적응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자아 효능감 평가와 같은 여러 가지 자기평가적 개념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 및 기타 요인과 관련이 있음도 밝히고 있다.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학습습관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학업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Elliot, et. al 1990: 203- 207).

이종승(1981: 117)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자신의 학습행동이다. 그리고 아동의 학습행동은 아동 자신이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과 가정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좌우된다. 아동의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학습행동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비교적 크다고 보았다. 아동의 학업성취와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물리적 및 심리적 가정환경의 변인들은 대개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학습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학습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모교육수준은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조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습행동이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아동의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김원중(1998)에 의하면 학업성취도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형태와 관련한 분석에서 학업성취도는 기숙사 거주, 자택 거주, 하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3-34).

知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도 자주 언급된다. 지능과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45 정도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난 상관계수의 값만으로 이러한 가정을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좀더 심도 있는 관찰에 의해 지능은 낮지만 비교적 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반대로 지능을 높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러한 가정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한다(Gage & Berliner 1984). 이와 같은 허구적 상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학습과진(over achievement)과 학습부진(under-achievement)이라는 개념이 활용된다. 이 개념은 우리가 지능은 같지만 학업성취도가 다른 학생들을 재고해보도록 한다.

학업성취도에 지능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動機이다. Ringness (1965: 600-606)는 IQ수준이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는 IQ가 120 이상이면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0명의 정상성취집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IQ, 성, 연령, 학교 및 학업 부담이 정상성취집단과 같지만 평균평점이 2.0 이하인 학생 30명의 학습부진 집단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가지 검사와 면접을 통하여 두 집단의 동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이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습부진과 학습과진이라는 개념에는 지능보다는 학업적인 성취동기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創造性和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서 조정기(1989: 109)의 보고서는 양자간에 정적 상관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수용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남학생은 양 변인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상관계수는 매우 낮은 값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은 자연이나 산수과목보다 음악-미술-체육 등의 과목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한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들도 교실에서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 과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우수한 학업성취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이루어지며, 학력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등급화 되는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동료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긴장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규혁1996: 297).

학업성취에서의 계속적인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킨다(Bloom 1967). 따라서 학습과제에 대한 적절 혹은 부적절의 경험이 누적될 경우 그 학생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결국, 지속적인 학업성취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의 누적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두 요인의 관계를 일반화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그 중 Stringer와 Glidewell(1967)이 초등학교 2-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적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의 증후군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임규혁(1991)의 고교생에 대한 학업성취의 누적적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고등학생 중 약 절반정도의 학생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박증 불안 요인은 1, 2학년보다는 대학입시에 임박한 3학년 학생들이 보다 심한 상태를 보였다. 둘째, 고등학생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에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2, 3학년 모두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보다 우울증-강박증-불안 등이 심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누적적 경험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을 때 정신건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성공적이지 못하였을 때에는 건강하지 못한 정신상태를 보였다.

학습과제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 소모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지나친 포부수준의 설정, 과다한 학습량, 능력을 초월하는 과제, 외부의 지나친 기대 등은 모두 학습자를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압도되어버린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 그 결과는 현실도피, 약물중독, 음주, 흡연 등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여 자신의 생애계획을 의미 있게 실현하도록 학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회조사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회조사 방법론은 탐구 변인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에 입각하여 척도를 제작하며, 또한 이 척도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중심 변인이 되는 학업 적응도의 조작적 정의는 학습자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사회와 조화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개 학습자의 학업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제작하고 여기서 얻은 측정치를 양적 자료로 변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업 적응도 지수(academic adjustment indicator: AAI)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AAI = \frac{\sum(\text{학습자의 흥미} + \text{노력} + \text{교수의 친절성})}{3} + \text{학업성적}$$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5개 영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업 부적응자에 관한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학업적응도를 역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학업 실패 경험의 원인 및 그 분포를 밝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이다. 인문대학의 표집 분포는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1>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표집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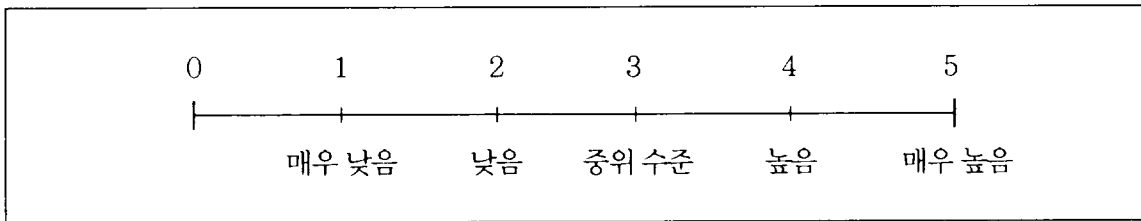
* () 은 재학생 숫자임

학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국어국문	27(41)	33(45)	26(32)	14(36)
영어영문	33(42)	37(53)	19(46)	12(48)
독어독문	14(37)	30(30)	25(33)	11(43)
일어일문	37(38)	33(44)	32(38)	19(33)
중어중문	31(33)	39(43)	25(27)	21(29)
사 학	33(43)	12(23)	22(37)	10(34)
사 회	37(46)	17(30)	28(37)	21(37)
철 학	13(25)			
음 악	28(37)	27(42)	36(42)	14(38)
미 술	9(30)	23(40)	22(36)	12(39)

척도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수는 30개이다. 척도는 Likert형 5점척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양 필수과목에 관한 5개 문항
- ② 계열 기초과목에 관한 5개 문항
- ③ 학문 관심과목에 관한 5개 문항
- ④ 학과 전공과목에 관한 5개 문항
- ⑤ 교직 과목에 관한 5개 문항

〈그림3-1〉 척도치의 판별



학업 적응도는 위에 언급한 5개 영역을 Likert형으로 제작된 척도로 측정된 값으로 가치의 경중을 판단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즉 각 영역의 평균치들은 〈그림3-1〉과 같은 5점 척도상 일정한 위치를 지시하도록 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판별 언어는 다음과 같다: 0~0.99: 매우 낮음, 1~1.99: 낮음, 2~2.99: 중위 수준, 3~3.99 높음, 4~5: 매우 높음

5. 자료의 분석

가. 국어국문학과

표〈5-1〉은 국어국문학과 1, 2, 3, 4학년의 각교과 영역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는 Likert형 5점척으로서 '1'에 접근할수록 적응도가 낮은 반면 적응도가 높을수록 5점에 접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분석표에는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의 신뢰도로 추정된 허용오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 과목에서 낮은 적응 점수 $\bar{x}=2.8148$ 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문관심 영역($\bar{x}=3.2308$)에서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표5-1〉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27	26	26		
	\bar{X}	2.8148	3.1058	3.2308		
	S	.5353	.9060	.8334		
	$S_{\bar{x}}$.1030	.1777	.1635		
	$P<.05$.3956	.3483	.3205		
2	n	33	33	33	33	16
	\bar{X}	3.0076	3.2121	3.4546	3.6742	2.5781
	S	.9611	.8388	.8184	.8326	.8931
	$S_{\bar{x}}$.1673	.1460	.1425	.1449	.2233
	$P<.05$.3279	.2862	.2793	.2840	.8578
3	n	26	24	26	26	11
	\bar{X}	2.8942	3.2917	3.2596	3.7404	3.0909
	S	.8402	.8928	.7952	.6383	.9764
	$S_{\bar{x}}$.1648	.1822	.1560	.1252	.2944
	$P<.05$.3230	.3571	.3058	.2454	.5770
4	n	14	12	14	14	8
	\bar{X}	3.0010	3.3750	3.6786	3.9286	3.5313
	S	.7468	1.0252	.7559	.7100	.8066
	$S_{\bar{x}}$.1996	.2960	.2020	.1898	.2852
	$P<.05$.3912	.5802	.3959	.3720	.5590

2학년의 경우 교직과목(\bar{x} =2.5781)에서만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중위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위수준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공영역(\bar{x} =3.6742)이다. 3학년은 교양필수(\bar{x} =2.8942)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위수준 이상의 적응점수를 보이고 있다. 전공영역(\bar{x} =3.7404)은 높은 수준의 적응에 육박하고 있다. 4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위수준 이상의 적응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공영역(\bar{x} =3.9286)은 높은 적응수준에 도달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어국문학과와 의 경우 위의 분석표는 1, 2학년에서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에서 부적응을 보이다가 3학년에 진급하면서 전 교과영역에서 완만한 적응상태에 돌입하여 4학년에 그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2〉 학업부적응자 분석

* ()은 백분율임

원인 \ 교과영역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	교직	계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1	2	3		8 (12.69)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7	7	8	5	2	39 (61.91)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1	1			3 (4.76)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					3 (4.76)
⑤ 기타	4	2	2	2		10 (15.87)
계	27(42.86)	11(17.46)	13(20.63)	10(15.87)	2(3.17)	63

〈표5-2〉는 국어국문과의 학업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영역별 분석에서는 학업부적응자 분포는 교양필수가 전체의 42.86%를 차지하고, 학문관심 20.63%, 계열기초 17.46%, 전공 15.87% 등의 순이다. 학업부적응 원인은 '자신의 노력부족'이 61.91%, '기타' 원인이 15.87%, 그리고 '자신의 지적능력부족'이 1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국문학과와의 경우 전체의 74.60%가 학업부적응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한편, 학업 부적응 원인을 외인으로 돌리는 분포는 전체의 15.87%이다.

나. 영어영문학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는 Likert형 5점척으로서 1에 접근할수록 적응도가 낮은 반면 적응도가 높을수록 5에 접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5-3〉은 영어영문과 재학생의 학업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 과목에서 낮은 적응 점수(=2.8148)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문관심 영역(=3.2308)에서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표5-3〉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33	31	32		
	\bar{X}	2.9697	3.2742	3.1171		
	S	.7468	.7889	.7071		
	$S_{\bar{x}}$.1300	.1417	.1250		
	$P < .05$.2548	.2778	.2450		
2	n	36	34	37	37	7
	\bar{X}	2.6667	2.8382	3.1757	3.1014	2.2143
	S	.7512	.9147	.7859	.7180	.7962
	$S_{\bar{x}}$.1252	.1569	.1292	.1180	.3009
	$P < .05$.2454	.3075	.2532	.2313	.5898
3	n	19	16	19	18	4
	\bar{X}	2.9737	3.0938	3.3026	3.5556	3.7500
	S	.6503	.8209	.8481	.6157	.4564
	$S_{\bar{x}}$.1492	.2052	.1946	.1451	.2282
	$P < .05$.2924	.4022	.3814	.2844	.4473
4	n	12	10	11	10	3
	\bar{X}	3.0625	3.6750	3.6818	3.9250	3.2500
	S	.8863	.8979	.7424	.9650	.4330
	$S_{\bar{x}}$.2559	.2839	.2238	.3052	.2500
	$P < .05$.5016	.5564	.4665	.5982	.4900

2학년에서 교양필수 영역($\bar{x}=2.6667$)은 낮은 수준의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1학년의 평균보다 더 떨어져 있다. 교직($\bar{x}=2.2143$)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낮은 적응도에 머물고 있다. 교양필수 역시 3학년까지 낮은 적응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밖에 교과영역에서는 대체로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전공의 적응도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4학년에서 정점($\bar{x}=3.9250$)에 이르고 있다.

본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학년에서 각 교과영역별에 따른 허용오차가 국어국문과에 비해 약간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표본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그만큼 평균 추정치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5-4〉는 영어영문과 학생들의 학업부적응자 분포를 조사한 결과이다. 각 교과영역별 학업실패자 분포는 계열기초 39.72%, 교양필수 26.03%, 학문관심 19.18%의 순이다. 영어영문과의 경우 타학과에 비해 전공영역의 실패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부적응에 대한 원인별 분석에서는 다섯 개의 원인분항 중 학업 부적응자들이 선택한 원인들은 자신의 노력부족이 65.75%, 기타 원인이 13.70%, 그리고 '교수의 능력부족'이 10.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영문과의 학업실패자들은 학업 부적응에 대한 주된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 및 '기타 원인'으로 보고 있다.

〈표5-4〉 학업부적응자 분석(괄호안은 백분율임)

* () 은 백분율임

원인 \ 교과영역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	교직	계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	2				5 (6.85)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1	22	11	3	1	48 (65.75)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2				2 (2.74)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		1	2	2	8 (10.96)
⑤기 타	2	3	2	3		10 (13.70)
계	19(26.03)	29(39.72)	14(19.18)	8(10.96)	3(4.11)	73

다. 독어독문학과

〈표5-5〉는 독어독문과 학생들의 각 교과영역별을 학업적응도를 학년별로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각 학년별로 따라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하고 끝으로 95%의 신뢰도로 오차 범위를 산출하였다.

1학년의 경우 학문관심(\bar{x} =3.1250)과 계열기초(\bar{x} =3.0010)는 중위수준의 점수를 유지한 반면 교양

필수($\bar{x}=2.8036$)는 학업적응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양필수는 2학년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2학년에서 전공($\bar{x}=3.3362$) 영역이 중위수준을 넘어 높은 적응점수를 지향하는 반면 계열기초 학문관심 영역은 겨우 중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3학년에서는 전공($\bar{x}=3.3229$), 학문관심($\bar{x}=3.2500$), 및 계열기초($\bar{x}=3.0313$) 등이 중위 수준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교직($\bar{x}=3.9500$)을 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타 교과영역에 비해 훨씬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표5-5〉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14	13	12		
	\bar{X}	2.8036	3.0010	3.1250		
	S	.7350	.9520	.5790		
	$S_{\bar{x}}$.1964	.2640	.1671		
	$P<.05$.3849	.5174	.3275		
2	n	30	29	29	29	6
	\bar{X}	2.9250	3.0186	3.0431	3.3362	2.9167
	S	.6268	.7485	.5264	.7970	.5845
	$S_{\bar{x}}$.1144	.1390	.0977	.1480	.2386
	$P<.05$.2242	.2724	.1916	.2900	.4677
3	n	25	24	22	24	5
	\bar{X}	2.7700	3.0313	3.2500	3.3229	3.9500
	S	.6288	.6048	.7440	.7922	.4809
	$S_{\bar{x}}$.1258	.1235	.1586	.1617	.2151
	$P<.05$.2466	.2421	.3109	.3169	.4216
4	n	11	10	11	11	6
	\bar{X}	2.7955	2.4750	2.5000	3.2273	2.5833
	S	.8278	.7212	.8139	.6709	.7718
	$S_{\bar{x}}$.2496	.2281	.2454	.2023	.3151
	$P<.05$.4892	.5508	.4809	.3965	.6716

4학년의 경우 전공영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학업 적응도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는 타 학과에서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적응도가 좋아지는 현상과 대비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5-6〉 학업부적응자 분석

* ()은 백분율임

원인 \ 교과영역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계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1	1			4 (7.69)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9	6	5	3	3	26 (50.00)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3	1	2	1	1	8 (15.38)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1	2	2	1	8 (15.38)
⑤기 타	1	1	1	2	1	6 (11.54)
계	17(32.69)	10(19.23)	11(21.15)	8(15.38)	6(11.54)	52

〈표5-6〉은 독어독문과 학생의 학업부적응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영역별 분석에서는 32.69%가 교양필수에서, 21.15%가 학문관심에서, 19.23%가 계열기초에서 학업실패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실패 원인별 분석에서는 학업실패자의 50%가 그 원인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반응하였다. 그 밖에 '동료들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와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반응한 것이 각각 15.38%에 이른다. 특이한 점은 독어 독문과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학업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 일어일문과

〈표5-7〉은 일어일문과의 학년별 각 교과영역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표는 각 교과영역별로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 신뢰도로 추정한 허용오차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5-7〉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37	19	35		
	\bar{X}	2.6351	2.7237	3.0000		
	S	.7786	.6556	.7326		
	$S_{\bar{X}}$.1280	.1504	.1238		
	$P < .05$.2509	.2948	.4756		
2	n	33	31	33	33	14
	\bar{X}	2.8455	3.0565	3.4015	3.7803	2.8571
	S	.6310	.6913	.7446	.7415	.8009
	$S_{\bar{X}}$.1098	.1242	.1296	.1291	.2141
	$P < .05$.2152	.2434	.2540	.2530	.4196
3	n	32	30	32	32	11
	\bar{X}	2.8907	3.2167	3.4766	3.6719	3.7955
	S	.6380	.8826	.8239	.6998	.7650
	$S_{\bar{X}}$.1128	.1611	.1457	.1237	.2307
	$P < .05$.2210	.3518	.2856	.2425	.4522
4	n	19	19	17	19	3
	\bar{X}	2.7632	3.1316	3.1765	3.6053	3.6667
	S	.5681	.6840	.7330	.7135	.1443
	$S_{\bar{X}}$.1303	.1569	.1778	.1637	.0833
	$P < .05$.2554	.3075	.3485	.3209	.1633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bar{x} = 2.6531)와 계열기초(\bar{x} =2.7237)는 낮은 적응도를 보인 반면 학문관심(\bar{x} =3.0000)은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유지하고 있다. 2학년에서 역시 교양필수(\bar{x} =2.8455) 성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적응도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열기초, 학문관심 및 전공들은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직(\bar{x} =2.8571)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학업 적응도 역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학년과 4학년에 있어서 교양필수는 계속적으로 낮은 적응수준에 있는 반면 다른 영역들은 비교적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지속하고 있다. 타 학과에 비교하여 4학년의 학업적응도가 전반적으로 3학년보다 뒤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5-8〉학업부적응자 분석

* ()은 백분율임

원인 \ 교과영역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	교직	계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				1	4 (8.16)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1	6	7	4	2	30 (61.22)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1	1		2	6 (12.25)
⑤ 기타	5	2	1		1	9 (18.37)
계	21(42.86)	9(18.37)	9(18.37)	4(8.16)	6(12.24)	49

〈표5-8〉은 일어일문과의 학업부적응 학생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교과영역별에서는 학업부적응 학생의 42.86%가 교양필수에서 실패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이 각각 18.37%이다. 교직이수자의 경우 전체의 12.24%가 실패경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부적응 원인분석에서는 학업부적응 학생의 61.22%가 '자신의 노력부족'이 학업실패 원인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기타' 원인으로 학업에 실패했다고 반응하는 분포는 전체의 18.37%이다. 그 밖에 12.25%는 '교수의 능력부족'이 자신의 학업실패원인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마. 중어중문학과

〈표5-9〉는 중어중문과 재학생의 학년별에 따른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표는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 신뢰도로 추정한 허용오차등을 포함하고 있다.

1학년의 경우 전 교과영역에서 중위수준의 학업적응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문대학에서 유일하게 교양필수 및 계열기초에서 중위수준을 넘는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3학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2학년 및 3학년에서 각 교과영역의 학업적응도는 중위수준($\bar{x}=3.00$)을 넘어 높은 수준의 적응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4학년에서 교양필수($\bar{x}= 2.8750$) 및 계열기초($\bar{x}= 2.8421$)

등이 낮은 적응도로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문관심 및 전공영역에서는 2, 3학년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5-9〉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31	23	30		
	\bar{X}	3.0726	3.2065	3.2333		
	S	.5852	.6154	.6757		
	$S_{\bar{x}}$.1051	.1283	.1234		
	$P<.05$.2060	.2515	.2419		
2	n	39	39	40	39	
	\bar{X}	3.1667	3.0897	3.6188	3.7179	
	S	.7079	.8839	.8435	.8315	
	$S_{\bar{x}}$.1134	.1415	.1334	.1331	
	$P<.05$.2223	.2773	.2615	.2609	
3	n	25	23	24	24	
	\bar{X}	3.0500	3.3696	3.4479	3.7500	
	S	.8839	.8851	.7185	.7940	
	$S_{\bar{x}}$.1768	.1845	.1467	.1621	
	$P<.05$.3465	.3616	.2875	.3177	
4	n	20	19	20	21	
	\bar{X}	2.8750	2.8421	3.4875	3.5238	
	S	.9511	1.0679	.9716	1.0663	
	$S_{\bar{x}}$.2127	.2450	.2172	.2327	
	$P<.05$.4169	.4802	.4257	.4561	

〈표5-10〉은 중어중문학과와 학업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교과별에 따른 부적응비율은 교양필수가 42.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계열기초로서 23.81%이다. 학문관심영역도 19.05%가 학업실패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14.29%)에서의 학업실패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업실패원인 분석에서는 전체의 45.24%가 자신의 노력부족을 학업실패의 원인으로

로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26.19%)를 학업실패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학업실패 원인으로서는 21.43%가 '자신의 지적 능력 때문에' 로 밝히고 있다.

〈표5-10〉 학업부적응자 분석

* ()은 백분율임

원인	교과영역				계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교직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2	2	3	9 (21.43)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9	5	3	2	19 (45.24)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1 (2.38)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2 (4.76)
⑤기 타	4	3	3	1	11 (26.19)
계	18(42.86)	10(23.81)	8(19.05)	6(14.29)	42

바. 사학과

〈표5-11〉은 사학과의 각 교과영역별에 따른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표에는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신뢰도로 추정된 허용오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5-11〉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33	32	33		
	\bar{x}	2.7121	2.8281	2.6894		
	S	.7581	.9597	.8840		
	$S_{\bar{x}}$.1320	.1697	.1539		
	$P < .05$.2587	.3326	.3016		
2	n	12	12	12	12	2
	\bar{x}	2.2500	2.8542	3.1042	3.4792	3.2500
	S	.8461	.8948	.8884	.8884	1.4142
	$S_{\bar{x}}$.2443	.2583	.2565	.2565	1.0000
	$P < .05$.4788	.5062	.5027	.5027	1.9600
3	n	22	21	20	20	10
	\bar{x}	2.6364	3.1667	3.5500	3.3250	3.8250
	S	.8264	.6724	.8054	.7526	.7822
	$S_{\bar{x}}$.1762	.1467	.1808	.1683	.2473
	$P < .05$.3454	.2875	.3544	.3299	.4847
4	n	10	8	7	7	4
	\bar{x}	2.6000	3.6563	3.2143	3.8571	3.6250
	S	.9295	.8011	1.2536	.9112	.5204
	$S_{\bar{x}}$.2939	.2832	.4738	.3444	.2602
	$P < .05$.5760	.5501	.9286	.6750	.5099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bar{x} =2.7121), 계열기초(\bar{x} =2.8281) 및 학문관심(\bar{x} =2.6894) 등 세 교과영역에서 모두 낮은 학업적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2학년에서는 학문관심(\bar{x} =3.1042)이 중위 수준의 적응도로 회복된 반면 교양필수 및 계열기초는 여전히 낮은 적응수준에 있다. 그러나 전공은 중위수준의 적응도에서 높은 수준의 적응도를 지향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교양필수(\bar{x} =2.6364)만 낮은 적응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타 교과영역에서는 모두 중위수준을 넘어 높은 적응도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4학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5-12〉 학업부적응자 분석

* ()안은 백분율임

원인	교과영역				계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	1	1		3 (7.69)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4	4	5	5	28 (71.79)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2	2	5 (12.82)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			1 (2.56)
⑤기 타	2				2 (5.13)
계	17(43.59)	7(17.95)	8(20.51)	7(17.95)	39

〈표5-12〉는 사학과 재학생의 학업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영역별 분석에서 사학과 재학생이 가장 많이 학업실패 경험을 한 교과는 교양필수로 전체 실패자의 43.59%를 차지한다. 다음은 학문관심 영역으로 전체 학업실패자의 20.51%이며 계열기초 및 전공 영역의 실패자 비율은 각각 17.95%이다. 대개 타 학과에서는 전공영역에서 학업실패자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학과의 경우 전공영역에서 학업실패자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 사회학과

〈표5-13〉은 사회학과의 각 교과영역별 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표는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의 신뢰도로 추정된 허용오차의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교양필수($\bar{x}=2.8919$), 계열기초($\bar{x}=2.8900$) 및 학문관심($\bar{x}=2.8971$) 등 세 영역 모두에서 낮은 학업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표5-13〉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37	25	34		
	\bar{X}	2.8919	2.8900	2.8971		
	S	.7230	.7111	.7641		
	$S_{\bar{x}}$.1189	.1422	.1310		
	$P < .05$.2330	.2787	.2568		
2	n	17	15	17	17	6
	\bar{X}	2.6765	3.0333	2.6471	3.2794	3.0001
	S	.5574	.6999	.5594	.7282	.5477
	$S_{\bar{x}}$.1452	.1807	.1357	.1766	.2236
	$P < .05$.2846	.3542	.2660	.3461	.4383
3	n	27	28	28	28	6
	\bar{X}	2.6296	3.0625	3.2143	3.2232	3.5833
	S	.6807	.8154	.8968	.9263	.8010
	$S_{\bar{x}}$.1310	.1541	.1695	.1751	.3270
	$P < .05$.2568	.3020	.3322	.3431	.6409
4	n	21	20	20	20	8
	\bar{X}	2.6786	3.0750	3.1000	3.0625	3.1250
	S	.7033	.8926	.7922	.8617	.9063
	$S_{\bar{x}}$.1535	.1996	.1771	.1927	.3204
	$P < .05$.3009	.3912	.3471	.3703	.6280

2학년에서는 교양필수 및 학문관심에서 여전히 낮은 적응도를 보인 반면, 계열기초, 전공 및 교직에서 중위수준의 적응도를 유지하고 있다. 3학년의 경우 교양필수($\bar{x}=2.6296$)만 낮은 적응도를 보인 반면, 대부분의 교과영역에 걸쳐 중위수준에서 높은 적응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4학년 역시 3학년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5-14〉 학업부적응자 분석

* ()안은 백분율임

원인	교과영역						계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	교직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2 (4.26)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4	2	8	9	2		35 (74.47)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1 (2.13)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						1 (2.13)
⑤ 기 타	2	3	1	1	1		8 (17.02)
계	20(42.55)	5(10.64)	9(19.15)	10(21.28)	3(6.38)		47

〈표5-14〉는 사회학과 재학생의 학업 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교과영역별 분석에서는 전체의 42.55%가 교양필수에 실패경험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공영역의 학업실패 경험자가 전체의 21.28%나 되어 사회학과 재학생의 전공영역에 대한 학업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문관심 영역의 학업실패 경험자 비율은 19.15%이다. 계열기초 및 교직은 학업실패경험자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업부적응 원인분석에서는 전체의 74.47%가 '자신의 노력부족 때문에' 라는 항목에 반응하였다. 이어 17.02%가 '기타' 항목을 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 논문에서 밝힐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 철학과

〈표5-15〉은 철학과 1학년의 각 교과영역별 학업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표는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의 신뢰도로 추정된 오차한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철학과 1학년의 반응은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등 세 영역에서 모두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설 학과로서 상급학년으로부터 학습자료 및 교수특성에 대한 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5-15〉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13	13	13		
	\bar{X}	2.4231	2.5385	2.7115		
	S	.7596	.7206	.7419		
	$S_{\bar{x}}$.2106	.2109	.2057		
	$P < .05$.4127	.4134	.4032		

〈5-16〉 학업부적응자 분석

* ()안은 백분율임

원인	교과영역					계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	4	4			13 (86.67)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⑤기 타		1	1			2 (13.33)
계	5(33.33)	5(33.33)	5(33.33)			15

〈표5-16〉은 철학과 1학년의 학업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교과영역별 분석에서는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등 세 영역에서 모두 낮은 학업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분포도 동일하다. 즉 학업실패자들이 동일하게 세 영역에서 부적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실패원인 분석에서는 전체의 86.67%가 자신의 노력부족 때문 에 를 택하였다. 그리고 13.33%는 '기타' 원인을 택하였다.

자. 음악학과

〈표5-17〉은 음악과 재학생의 학년별에 따른 각 교과영역의 학업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학년의 경우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등 세 영역에서 모두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표5-17〉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28	28	28		
	\bar{X}	2.3563	2.4261	2.6831		
	S	.6314	.5871	.7627		
	$S_{\bar{x}}$.1193	.1109	.1441		
	$P < .05$.2338	.2174	.2825		
2	n	26	26	26	27	6
	\bar{X}	2.4372	2.6174	2.5810	3.0101	2.4069
	S	.6620	.5781	.5489	.6729	.5216
	$S_{\bar{x}}$.1298	.1134	.1076	.1295	.2129
	$P < .05$.2544	.2222	.2109	.2540	.4173
3	n	35	35	36	27	7
	\bar{X}	2.4436	2.6573	2.4981	2.9876	2.4780
	S	.7625	.6829	.5867	.6471	.5628
	$S_{\bar{x}}$.1289	.1154	.0978	.1245	.2127
	$P < .05$.2526	.2262	.1917	.2440	.4169
4	n	14	14	14	14	8
	\bar{X}	2.6450	2.7741	2.5286	3.0102	2.5469
	S	.6478	.5879	.7391	.6920	.5847
	$S_{\bar{x}}$.1731	.1571	.1975	.1849	.1563
	$P < .05$.3393	.3079	.3871	.3624	.3063

2학년에서는 전공을 제외한 전 교과영역에서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즉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의 평균들은 2.4436, 2.6174 및 2.5810이며 교직을 택한 학생의 평균 역시 2.4069로 Likert 형 5점척도상 낮은 적응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 4학년까지 연장되고 있다. 3학년에서는 전 교과 영역에서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4학년에서는 전공영역($\bar{x}=3.0102$)을 제외한 전 교과 영역에서 낮은 적응도를 지속하고 있다. 음악과의 대체적인 학업적응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5-18〉 학업부적응자 분석

* ()안은 백분율임

원인 \ 교과영역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공	교직	계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	1	2	2	1	9 (17.65)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8	7	8	6	1	30 (58.82)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1 (1.96)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	5	1	9 (17.65)
⑤ 기타	2					2 (3.92)
계	14(27.45)	8(15.87)	12(23.52)	13(25.49)	4(7.84)	51

〈표5-18〉은 음악과 재학생의 학업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영역별에 따른 학업실패자 분포는 교양필수에 27.45%, 전공에 25.49%, 계열기초에 15.87%가 반응하였다. 교직에서도 7.84%가 실패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부적응 원인별 분석에서는 학업 부적응자의 52.63%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그리고 학업부적응자의 15.79%가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반응하여 학업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분포는 전체의 62.42%나 된다.

학업부적응의 원인은 외부로 돌리는 반응으로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학업 부적응자의 13.16%가, '기타' 원인에 10.53%가 반응하였다.

차. 미술학과

〈표5-19〉는 미술과 재학생의 학년별 각 교과영역에 따른 학업적응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분석 표는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표본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및 95% 신뢰도로 추정된 허용오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5-19〉 학년별 각 교과영역의 적응도

학 년	통계치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문관심	전 공	교 직
1	n	9	9	9		
	\bar{X}	2.3611	2.5000	2.3889		
	S	.4859	.6847	.8937		
	$S_{\bar{x}}$.1620	.2282	.2979		
	$PK.05$.3716	.4473	.5839		
2	n	23	22	23	23	11
	\bar{X}	2.6628	2.7585	2.8493	3.5543	2.4545
	S	.7178	.9521	.7881	.6740	.5897
	$S_{\bar{x}}$.1497	.2030	.1643	.1405	.1778
	$PK.05$.2934	.3979	.3220	.2754	.3485
3	n	22	19	21	22	10
	\bar{X}	2.6023	2.8816	2.9857	3.3523	2.8835
	S	.6799	.8921	.8112	.8475	.6455
	$S_{\bar{x}}$.1450	.2045	.1770	.1807	.2041
	$PK.05$.2842	.4008	.3469	.3542	.4000
4	n	12	12	12	12	5
	\bar{X}	2.5417	2.9667	3.4167	3.4375	2.9500
	S	.7525	.8001	.7017	.8536	.6708
	$S_{\bar{x}}$.2172	.2310	.2026	.2464	.3001
	$PK.05$.4257	.4528	.3971	.4829	.5882

1학년에서 있어서 학업적응도는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등 세 영역에서 모두 Likert 척도상 중위 점수인 '3' 점과 낮은 적응도 점수인 '2' 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1학년의 학업적

응도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학년의 경우 전공($\bar{x}=3.5543$)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낮은 학업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학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의 학업 적응도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4학년에서는 약간 학업 적응수준에 변화가 나타났다. 즉 학분관심($\bar{x}=3.4167$)과 전공($\bar{x}=3.4375$)에서 중위 수준의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미술과의 대체적인 학업적응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5-20〉 학업부적응자 분석

원인 \ 교과영역	교양필수	계열기초	학분관심	전공	교직	계
①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	1	1	1	1	6 (15.79)
②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	6	4	3	2	20 (52.63)
③ 동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1	1	1			3 (7.89)
④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		2		5 (13.16)
⑤기 타	2	1	1			4 (10.53)
계	11(28.95)	11(28.95)	7(18.42)	6(15.79)	3(7.89)	38

〈표5-20〉 미술학과의 학업 부적응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영역별 분석에서는 교양필수 및 계열기초에서 학업실패를 경험한 학생이 각각 전체의 28.9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분관심 영역에서 학업부적응자 분포는 18.42%이다. 전공 및 교직에서의 학업실패자 비율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학업 부적응 원인 분석에서는 전체의 52.63%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반응하였다. 다음으로 전체의 15.79%가 '자신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반응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68.42%가 학업부적응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 부적응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으로는 '교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3.16%)와 '기타' 원인(10.53%)에 전체의 23.69%가 반응하였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생들이 각 교과영역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학업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대학 생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 적응도는 학습자가 학교에서 제시한 목표들 달성하기 위해 학교사회와 조화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자의 반응을 기초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 학업적응도 지수(academic adjustment indicator : AAI)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AAI = \frac{\sum(\text{학습자의 흥미} + \text{노력} + \text{교수의 친절성})}{3} + \text{학업성적}$$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이다. 학업적응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수는 30개이다. 척도는 Likert형 5점척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양 필수과목에 관한 5개 문항, ② 계열 기초과목에 관한 5개 문항, ③ 학문 관심과목에 관한 5개 문항, ④ 학과 전공과목에 관한 5개 문항, ⑤ 교직 과목에 관한 5개 문항

본 연구의 분석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학업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과들은 국어국문과, 영어영문과, 일어일본과, 중어중문과 등이다. ($3.0 < \bar{x} < 4.0$)

둘째, 전반적으로 학업 적응도가 중위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학과는 철학과, 음악학과 및 미술학과 등이다.

셋째, 5개 교과영역 중 가장 많이 학업적응에 실패하고 있는 영역은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이다. 인문대 10개 학과 가운데서 사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음악학과 및 미술학과 등은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3영역에서 모두 낮은 학업적응도를 보였다. ($2.0 < \bar{x} < 3.0$)

넷째, 교직 영역에서 낮은 학업 적응도를 보인 학과는 독어독문학과, 음악학과 및 미술학과 등이다.

다섯째, 교과영역별에 따른 학업 부적응자 분석 결과는 학업적응자 분석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장 학업 부적응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교과영역은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이다.

여섯째, 학업부적응 원인분석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문항에 학업실패 경험자의 대부분이 반응하였다. 학업부적응자는 학업실패의 원인을 대부분 외인보다는 내인에 두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습자가 교양필수, 계열기초 및 학문관심 영역에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수준에 맞는 수업반 편성, 적절한 교수방법의 선택 및 평가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교과들이 대단위 수업 반을 편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적응 학생들에게 적절한 개선 및 보상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姜善甫 外(1988).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제7집, 강릉대학교, p.5.
- 김원중(199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 탐색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 Vol. 16.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제8권, 연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pp. 87~95.
- 이경준(1983). '학습부진아의 인지특성 분석과 효율적인 교수전략 탐색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수원 외(1996). 「심리학」, 서울 : 정민사, p.125.
- 이종승(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의 한 인과분석' 교육학연구 19권 3호, p.117.
- 임규혁(1996). 「교육심리학」, 서울 : 학지사, p. 297.
- 임규혁(1991). '학업성취의 누적적 경험과 정신건강' 교육문제 연구, 4,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박숙희(1997). '뇌 기능분화와 창의성과 학업성취의 관련연구' 교육학연구 Vo.35, No.3 pp. 122~123.
- 조정기(1989). '창의력과 지능-흥미-학업성적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27권 2호, p. 109.
- Bloom, B. S.(1967).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 Y.: McGraw, p. 101.
- Dictionary of Education, ed. Carter V. Good(1973), 3rd ed., N.Y.: McGraw-Hill Book Co., p. 7.
- Elliot, T. R.; Godshall, F.; Shroout, J. R.; Witty, T. E. Problem-solving appraisal, self-reported study habits and performance of academically at-ris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90), pp.203~207.
- Gage, N. L. & Berliner, D. C. Educational Psychology 3rd ed. (1984, Boston: Houghton Mifflin Co.),
- Ringness, T. A. Affective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and non-successful bright ninth grade boy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3 (1965), pp. 600~606.
- Stringer, L A. & Guildwell, J. C. Early detection of emotional illness in school children: Final Report. (St. Louis: Miss County Health Department, 1967).

<abstract>

Survey of Academic Adjustment in College of Humanities

Lee, Wan-Jong

Academic adjustment is defined to the degree that the learner makes harmonizing relationships with the colleg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ppropriate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ructional planning by surveying the academic adjustment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A Scale of Academic Adjustment Indicators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concerning five academic areas. The Likert Type Scale indicates five points. The score 5 implies 'Highly Adjusting,' 4 Adjusting, 3 Neutral, 2 Maladjusting, and 1 Highly Maladjusting. Data were collected out of students in the College of Humaniti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Broadly speaking, well adjusted departments in five academic courses a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nd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3.0 < \bar{X} < 4.0$).

Second, Departments, which overall academic adjustment indicators are between maladjusted and neutral, are Dept. of Philosophy, Dept. of Music, and Dept. of Fine Arts.

Third, Most mal-adjusted academic areas are Liberal Arts and Science Compulsory, Affiliated Subjects Basic, Disciplinary Subjects Interested among five subject areas. Such departments as Dept. of Philosophy, Dept. of Music, and Dept. of Fine Arts turned out to be lowly adjusted in the above mentioned three subject areas($2.0 < \bar{X} < 3.0$).

Fourth, Such three departments as Dep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Music, and Dept. of Fine Arts turned out to be lowly adjusted in the subjects of Teacher Education.

Fifth, The analysis of academic maladjustments showed similar results with the analysis of academic adjustment. Maladjusted students experienced failure in such three fields as Liberal Arts and Science Compulsory, Affiliated Subjects Basic, Disciplinary Subjects Interested

among five subject areas.

Sixth, students responded that the causes of academic maladjustments were mainly 'their lack of efforts.' Their failure in academic adjustment was due to themselves rather than outside causes.

Proper measure should be taken to stimulate freshmen and sophomores about Liberal Arts and Science Compulsory, Affiliated Subjects Basic, and Disciplinary Subjects Interested so that the academic maladjusted are reduced. College authority is required to facilitate ability grouping, specified teaching plan, and compensatory classes for the needed students.